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된다.

(행1:8)

부제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5:13-14)

목회방향

1.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2.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3. 성도들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4.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2020년 7월 12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사 43:1-6, 44:1-5

제목 : 선민의 신앙 · 늘 푸른 인생(2):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 :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출 23:14)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월의 목회주제는 “선민의 신앙. 늘 푸른 인생”입니다. 주제 말씀은 “숫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사 44:4)입니다. 이 묵상 주제와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받은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시냇가의 버드나 무처럼 숫아나는 늘 푸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숫아나는 버드나무는 유대민족에게는 번영을 상징합니다. 숫아나는 버드나무가 심겨진 물가는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선민의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의 신앙만 분명히 갖고 있으면 버드나무처럼 숫아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전주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 주 버드나무 사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 선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지 안 갖고 있는 지 무엇을 보고 아시겠습니까?

전주에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선민의 신앙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가장 큰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고(유월절) 구원받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과거의 은총을 잊지 말고 (초막절)그리고 삶에 필요한 열매를 이렇게 반드시 주시는 그 은총을 잊지 말고(수장절) 감사하면서 살라는 명령입니다.

절기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늘 삶속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의 예배, 감사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 받은 백성의 신앙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서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숫아나는 늘 푸른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민의 신앙을 갖고 살고 있다고 인정하시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본문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의 기록한 책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유다 웃시아 왕의 통치 말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이사야는 3대 왕(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통치시대까지 약 40여 년간(BC740~700) 활동했습니다. 이 시대에 북 이스라엘 왕국은 앗시리아의 침략으로 망했고 (BC722) 남 유다 왕국은 망하지는 않았지만 유일 신 신앙에서 벗어나 우상들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질이 되는 모습이 강했습니다. 그 결과 예배가 타락하고 그렇게 되니 사회 공의가 타락하면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써의 구별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죄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번영하는 국가를 이루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돌아서지 아니하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유다 왕국도 결국은 후에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BC586) 그러나 이사야서는 훗날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포로에서 해방하게 되고 결국은 종말론 적인 사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평화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포로 (BC582) 이후 시기는 이사야가 활동(BC 740 ~ 700)을 마치고 죽은 후입니다. 그래서 포로 이후의 기록에 관해서는 학자들은 이사야 말고 또 다른 두 명의 익명 예언자들이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포한 말씀들이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말하고 있기에 하나의 책으로 합쳐져서 이사야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제1이사야서는 1:1-39:8까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방 민족과 열방에 대한 심판이 주제입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제2이사야서는 40:1-55:13까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희망이 계속 교차되고 있습니다. 제3이사야서는 56:1-66:24입니다. 종말에 대한 소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가 이루

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2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에 속해 있습니다. 이미 이 시기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BC 582) 고단한 포로 생활을 보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바벨론 여러 강변에 강제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흩어져 살면서 각자의 흩어진 곳에 있는 강변에 모여서 포로생활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즐겨 사용하던 악기들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나라 사람들이 그들에게 악기를 잘 타니까 잔치를 베풀고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차라기 손에 재주를 잇으면 잊었지 이방나라 사람들 앞에서 어찌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느냐, 안 부르겠다는 혹독한 결심으로 그들의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버드나무가 나옵니다. 우리도 버드나무처럼 회복이 되어서 그 때는 자유롭게 찬양을 부를 수 있겠다는 소망을 말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올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포로생활은 점점 길어집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렇게 무심한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포로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 지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차게 됩니다.

마음에 원망이 있으니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가?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우리의 소원을 듣고 계시는가? 듣고 계신다면 왜 우리의 소원은 성취가 되지 않는가? 늘 마음속 원망은 불평을 낳고 불평의 말은 씨앗이 되어서 삶을 점점 어두움의 속으로 이끌어 갑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면 죽습니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하면 못 살게 됩니다. 잘 살겠다, 잘 살겠다 하면 잘 삽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힘들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제2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제2이사야가 선포하는 위로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

용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제2이사야가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는 어떻게 시작되니까? 그 시작하는 말이 사40:1-2입니다. "1.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당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렇게 큰 회복의 은총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회복의 은총을 입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포로생활이지만 고통의 시간들이지만 적어도 선택받은 받은 백성처럼 사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삶에 큰 고통이 닥쳤을 때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 43:1과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다음으로 44: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계속 두려워말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속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삶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니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불신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움에는 형별이 따릅니다. 요한1서 4:18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제 2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즉 <종>으로, <택한 백성>으로, <나의 소유된 자>로 표현을 하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강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민의 신앙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1:9-10입니다. "9.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10.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서는 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택했다고 했습니다. 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 모퉁이에서 붙렸다는 것입니다. 지구촌 조그마한 땅 모퉁이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제게 적용했습니다. 대전시 대동 그 아주 작은 땅 모퉁이에서 동네 골목대장으로 놀기를 좋아하던 저를 초등학교 5학년 때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때 기도를 알았습니까?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알았습니까? 주일 성수를 십계명을 알았겠습니까?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택해주셨습니다.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친근하게 벗이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택하시고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설교를 써 내려가면서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새삼 느꼈습니다. 이게 어디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41:14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버려지 같

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같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뒤통수를 치는 자, 뒷다리를 잡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간사한 이름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도 한 간사한 자입니다. 정말 버리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벧으로 택하셨습니다. 종으로 택하셨습니다.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택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실패한다고 버리지 아니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 부인했을 때도 책망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 부릅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 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런 믿음이 있기에 고통 가운데에서도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 43:1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존재입니다. 여기 5만원 지폐가 있습니다. 깨끗해도 5만원입니다. 사람에게 짓 밟혀 흙이 묻어도 5만원입니다. 누가 침을 뱉어도 5만원입니다.

포로생활에 시달려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백성입니다. 몸에 갑자기 질병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순간의 실수로 죄를 지었어도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소망가운데 부릅니다. “밤 깊

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가사에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영어 가사는 이러합니다. “I am His own”(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생활에 힘들어 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선민의 신앙을 가지라고 합니다. 외적인 문제 바벨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어떻게 내려주십니까? 44:3-4입니다. “3.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4.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이 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복과 기쁨진 복입니다.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것도 우리 자손에게 후손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번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늘 푸른 삶 늘 푸른 가정 국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본문 44:5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삶이 회복이 되어서 버드나무처럼 솟아나서 주변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갑자기 삶에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나의 마음을 두렵게 만듭니까?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선민의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44:4절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고 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선민의 신앙으로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버드나무처럼 솟아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